

용인 동천동 손골수리수리



동천DIY센터

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10여 년간 자원순환 활동을 이어온 모임과 기업들은 2023년 의류 및 가전 수리 활동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. 이들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소비문화를 성찰하고 대안 에너지를 생활에 접목하고자 2024년 초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였으며, 그 성과로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사업을 통해 거점 공간인 '손골수리수리'를 조성하여 본격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



추진실적

- 분리배출 수집함 운영(6개소), 분리배출량 모니터링(주1회)
- 마을창고와 수리가게를 상시운영하여 마을자원을 공유하고,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유용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(30건)
-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자원순환 업사이클 교육을 실시 (총 32회 진행)
- 자원순환축제를 동네 장터와 연계하여 진행
- 자원순환 선진지/관련 기관 견학 (2회 - 누적 참여자 33명)

사업성과

- 마을창고 및 수리가게의 안정적 운영, 자원순환의 거점 2년차로 자리매김
-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지역 인지도 상승, 지역주민의 관심 증대
- 소형가전수리 및 느린바느질 프로그램의 활동가 발굴로 지속적인 운영 가능
- 손골수리수리 활동 관련 정책제안을 통해 용인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조례 일부개정
-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 설립(25.11.13.): 조합원 227명
-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방문(해외 8명, 네덜 / 국내 44명)



자원순환마을 **FESTA+**